

개신교 교단장 협의체인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8월 한국기독교연합(가칭)으로 통합하겠다고 선언하고 창립 총회를 열었다. 당시 두 단체는 정식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제회 총회를 통해 대표회장 인을 추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후속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정관 등을 놓고 두 단체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통합이 무산됐다.

한국교회연합은 이후 법인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 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회는 12월 중 한국기독교연합 제회 총회를 열고 정식법인으로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한국교회연합이 이 이름을 선점함에 따라 한국교회총연합회 측은 '한국교회총연합'으로 이름을 바꿔 제회 총회를 열었다.

한교총 측은 주요 대형교단의 참여로 한국교회의 95%가량이 한교총에 동참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교총 출범으로 개신교 연합기구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이 교계 내에서 제기됐다.

### ■ 시민단체에서 터져나온 종교개혁·적폐청산 목소리

불교, 개신교, 천주교 관련 단체들이 원효 탄신 1400주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공동 선언문을 12월 발표했다.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와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주류 종교의 관련 지식인들과 5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개혁선언 추진위원회는 “대다수 대중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종교는 따듯이 안아주지도, 길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며 성직자와 수행자들의 타락은 이미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종교 개혁을 천명했다.

현역 종교인이 아닌 국내 주류 종교 관련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종교개혁 활동에 나선 것은 종교가 스스로 개혁할 역량을 잃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 문화재

### ■ 개요

역사책을 바꿔 써야 할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인지를 두고 격론이 펼쳐진 '증도가자' 논란이 일단락됐다. 문화재청은 증도가자 소장자가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신청 심의를 부결했다.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었다.

또 소장자와 일부 서지학자의 주장대로 '남명천화상승증도가'를 찍은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다. 다만 문화재청은 이 활자가 오래된 활자일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이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도 허용됐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생태제방 축조안이 다시 부상했으나 문화재위원회

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문화재청이 2015년 환수한 덕종어보가 1924년에 다시 제작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 파장이 일었다.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광화문 헌판의 색상을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다. 경주 월성에서는 제물로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동궁에서는 8세기 수세식 화장실 유적이 나와 화제를 모았고, 경산에서는 압록국 왕릉급 무덤이 발견됐다.

해외 문화재 여러 점을 환수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실패했고,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도 무산됐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모두 세계기록유산이 됐다.

### ■ “출처 불분명한 증도가자, 보물 가치 없어”…7년 논란 일단락

2010년 9월 다보성고미술이 공개한 뒤 문화재계의 해묵은 쟁점이 된 '증도가자(證道歌字)'가 보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7년 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문화재청은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도가자를 조사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組版·판에 활자를 맞춰서 짜넣는 작업) 검증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활자일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서도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인지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증도가자의 소유자인 김종춘 다보성고미술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김 대표는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위원회가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신청을 부결한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장이라면 일단 지정을 보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승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한 활자다. 보물 증도가(보물 758-1호)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위한 현상변경, 진통 끝에 허가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71호 설악산 천연보

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11월 24일 허가했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2016년 12월 부결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 안건에 대해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는 10월 25일 열린 회의에서 또다시 부결로 결론을 모았으나,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양양군이 신청한 현상변경 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다만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에 소음 발생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산양의 번식기인 5~7월과 9~11월에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할 것을 권했다.

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해서는 운행 시간을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정하고, 관람객에게 외부 종자 반입 금지와 탐방 유의 사항 이행 등을 안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5년마다 동물, 식물, 지질 등 분야별 상황을 점검해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 사이에 길이 3.5km의 삭도를 놓는 것이 골자다.

## ■ ‘위안부 기록물’ 日저지에 밀려 세계기록유산 등재 실패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9개국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지 못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상세히 알려주는 피해자의 증언 기록을 비롯해 위안소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와 위안부 피해자 조사 자료, 피해자 치료 기록, 피해자 지원 운동 자료 등 2천744건으로 구성돼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10월 24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가치를 심사했고,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는 위안부 기록물과 일본 정부가 단독 신청한 ‘위안부와 일본군 군율에 관한 기록’을 심사해 ‘대화를 위해 등재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안부와 일본군 군율에 관한 기록은 위안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됐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발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 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한 일본 정부의 저지를 뚫지 못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등재를 공동 추진한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모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조선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



▲ 10월 31일 오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보류 결정에 대한 국제연대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신혜수 국제연대위원회 사무단 단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간 바쿠후(幕府·무사정권)의 요청으로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에 관한 기록을 말한다.

조선왕실의 어보(御寶)와 어책(御冊)은 의례용 도장인 어보 331점과 세자 책봉이나 직위 하사 시에 대나무나 옥에 교서를 새긴 어책 338점으로 이뤄져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일제 항거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 있는 문건 2천472건으로 구성됐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나랏빚을 갚기 위해 남성들은 술과 담배를 끊고, 여성들은 반지를 팔아 돈을 모으는 과정을 쓴 수기와 언론 보도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16건으로 늘었다.

## ■ 흑백사진 속 광화문 현판 색상 찾기 위한 연구 진행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광화문 사진이 2016년 2월 발견되면서 2010년 광화문 복원에 맞춰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제작됐던 광화문 현판이 색상 논란에 휘말렸다.

1893년 9월 이전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은 현판의 바탕색이 글자색보다 진해 검은색 바탕에 흰색이나 금색 글씨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광화문 현판에서 균열이 일어나 새로운 현판을 제작하고 있던 문화재청은 광화문 현판의 색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광화문(光化門)의 현판 색상을 알아내기 위한 과학적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촬영 실험을 위해 ▲흰색 바탕에 검은색·코발트색 글씨 ▲검은색 바탕에 흰색·금색·금박 글씨 ▲오칠 바탕에 흰색·금색 글씨 ▲코발트색 바탕에 금색·금박 글씨 등 현판 4개가 제작됐다. 여기에 새롭게 단청한 현판과 단청한 뒤 색이 바랜 것처럼 보이도록 인위적으로 처리한 현판을 각각 하나씩 제작해 모두 8개가 완성됐다.

협력단은 촬영 실험을 한 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사진, 도쿄대의 1902년 유리건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1916년 유리건판 사진 등과 비교하는 작업을 벌였다.

## ■ 경주 월성서 제물로 묻은 인골 출토…동궁서는 수세식 화장실 유적 나와

경주의 신라 유적에서 잇따라 흥미로운 발굴 성과가 나왔다.

신라의 천년 왕성인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성벽에서 약 1천 500년 전 제물로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 2구가 나왔다. 성벽 유적에서 인골이 출토된 것은 국내 최초로, 제방을 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을 주춧돌 아래에 매장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인주(人柱) 설화가 허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7년 5월 16일 경주 월성에서 열린 발굴조사 설명회에서 5세기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쪽 성벽 문지(門址·문 터)의 기초 층에서 하늘을 향해 똑바로 누워 있는 인골 1구와 얼굴과 팔이 이 인골을 향해 있는 또 다른 인골 1구를 2016년 12월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골의 얼굴 주변에서는 나무껍질이 부분적으로 확인됐고, 발치에서는 4세기 후반~5세기 초반의 토기 4점이 함께 나왔다.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결박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고 곧게 누운 점으로 미뤄 사망한 뒤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례 행위를 치르고 나서 매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라의 태자가 생활한 별궁인 경주 동궁(東宮)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세식 화장실 유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고대 화장실 유적 중에 화장실 건물과 석조변기, 오물 배수시설이 모두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토 당시 석조변기는 타원형 변기 좌우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널찍한 직사각형 판석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사람이 끄고리고 앉아 용변을 보면 오물이 암거(暗渠·물을 빼낼 수 있도록 밑으로 낸 도랑)를 통해 배출되는 형태다. 타원형 변기는 길이 90cm, 너비 65cm 크기다. 움푹 팬 변기에는 직경이 약 12cm인 구멍이 뚫렸다. 이 구멍은 기울어진 암거를 통해 배수로와 연결된다. 타원형 변기 위에 올린 판석은 길이가 175cm, 너비가 60cm다.

한편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에서는 통일신라 효성왕(재위 737~742년)을 위해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미완성 무덤이 발견됐다.

## ■ 美서 환수한 덕종어보, 1924년 재제작품으로 확인…진위 논란

2015년 미국 시애틀미술관으로부터 돌려받은 덕종어보가 조선왕실의 유물이 아닌, 1924년에 다시 만들어진 물품으로 드러나 진위 논란에 휘말렸다.

환수 당시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이 죽은 아버지 덕종(1438~1457년)을 기려 1471년 제작한 것이라고 발표했던 문화재청은 문화재 행정·연구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덕종어보가 원품(原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나서도 2017년 2월 어보 소장기관인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의 누리집 정보를 수정한 뒤 8월 18일 열린 ‘다시 찾은 조선왕실의 어보’ 기자 간담회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려 비판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지금 남아 있는 덕종어보는 일제강점기에 분실

됐다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원품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덕종어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덕종어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덕종어보는 성종이 아버지에게 운문의경왕(溫文懿敬王)이라는 존호를 올릴 때 바친 유물이다. 그러나 1924년 종묘에 사상 초유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종어보를 포함해 모두 5점의 어보가 사라졌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조선왕실의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이왕직(李王職)이 조선미술품제작소에 제작을 지시했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물품이 종묘에 안치됐다.

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1924년에 다시 만들어진 어보의 경우 구리 함량이 70%를 넘었으나, 15세기에 제작된 어보 9점은 금이 60% 이상으로 성분이 달랐다.

## ■ 경산서 2천 년 전 압독국 왕릉급 무덤 발굴…‘규모·부장품 압도적’

2천 년 전 경북 경산 일대를 지배한 압독국(押督國) 시대의 왕릉급 무덤으로 추정되는 목관묘(木棺墓·나무널무덤)가 발견됐다. 이 무덤은 기원 전후에 한반도 남부에서 유행한 통나무 목관묘로, 규모나 부장 유물이 동시대 다른 무덤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성림문화재연구원은 경산 하양(후학)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하양읍 도리리 115의 5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원삼국시대인 1세기 전후의 목관묘를 찾아냈다.

이 무덤은 동서 방향으로 놓였으며, 전체적으로는 卍자 형태다. 통나무를 파서 시신을 두고, 길쭉한 나무 판재를 사방에 세웠다. 목관의 크기는 길이 260cm, 너비 102cm다. 목관이 안치된 묘광(墓坑)은 길이 311cm, 너비 147cm로 조사됐다.

목관 안에서는 피장자의 두개골과 치아, 팔뼈, 정강이뼈가 일부 확인됐다. 고대 목관묘에서 인골이 출토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무덤 내외부에서는 청동거울, 칠초동검, 칠초철검, 청동매(靑銅馬), 팔찌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허리춤과 배 위에서는 부채 3점이 나왔다. 팔뼈 아래에서는 깨뜨려 묻은 지름 17.5cm의 거울 소명경(昭明鏡)이 발견됐다. 무덤 바닥에서는 판상철부(板狀鐵斧·판 모양 쇄도끼) 26점도 드러났다.

## ■ 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안’ 부결…보존 대책 또다시 원점

대곡천 수위에 따라 침수와 노출이 거듭되고 있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를 보존하기 위해 제방을 쌓는 방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문화재위원회는 7월 20일 울산시가 제시한 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 축조 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생태제방 축조 안은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2013년부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으로 3년간 추진한 ‘가변형 임시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가 기술적 결함으로 실패 판정을 받은 뒤 대안으로 나왔다.

이 안은 암각화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길이 357m의 기다란 독을 쌓는다는 것이 골자다. 제방의 폭은 하부가 81m, 상부가 6m다. 다만 제방을 쌓으려면 바닥은 시멘트와 같은

충전재를 강제로 주입해 다지고, 암각화 반대편은 땅을 파서 새로운 물길을 조성해야 해 환경이 변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화재위원회는 심의 이후 “생태제방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역사문화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암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생태제방과 유사한 임시제방 설치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두 번 모두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로 부결됐다.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세 번째 도전에서도 부결된 제방 축조 안은 사실상 퇴출당하게 됐다.

## ■ 동화사 지장시왕도 · 이선제 묘지 · 강노 초상 고국 품으로

해외에 있던 우리 문화재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88년 8월 5일 대구 동화사 염불암에서 도난당한 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던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를 찾아왔다. 지장시왕도는 2014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LA카운티박물관의 한국 문화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존재가 알려졌다.

조계종은 1999년 발행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이 불화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LA카운티박물관에 환수를 공식 요청했다.



▲ 7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 반환식에서 동화사 주지인 호광 스님(오른쪽)과 마이클 고반 LA카운티박물관 관장이 기증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 밀매단이 1998년 6월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던 조선 묘지(墓誌·망자의 행적을 적어 무덤에 묻은 돌이나 도판)를 환수했다. 조선 전기 문신인 이선제의 묘지로 높이 28.7cm, 장폭 25.4cm이며 단종 2년(1454)에 삼강 기법으로 만들어진 분청사기다.

명문(銘文)은 묘지의 앞면과 뒷면, 측면에 248자가 있고,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래 소장자인 도도로키 구니에(等等力 邦枝, 76) 씨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이선제 묘지가 도난품임을 알리자 국립중앙박물관에 무상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김홍도와 신위의 스승이자 시·서·화에 능해 삼절(三絶)로 일컬어진 표암(豹菴) 강세황(1713~1791년)의 증손자인 강노(1809~1886년)를 그린 초상화를 미국에서 들여오기도 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강노 초상

화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오면서 강세황 부친 강현(1650~1733년)부터 강세황, 강인(1729~1791년), 강이오(1788~?), 강노까지 전주 강씨 5대 초상화가 모이게 됐다.

## ■ 서울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무산

조선시대부터 600여 년간 서울을 감싸 안고 있는 성곽인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등재에 실패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COMOS, 이코모스)는 3월 초 14명으로 구성된 패널 심사에서 한양도성에 대해 ‘등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등재하려는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하며, ‘등재 불가’를 받으면 등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등재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 1995년 주민들이 등재를 반대했던 ‘설악산 자연보호구역’과 2009년 ‘등재 불가’ 판정을 받은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을 포함하면 네 번째 자진 철회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코모스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은 ‘한국의 서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등재를 추진하던 유산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라는 본선 문턱에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

## 관광

### ■ 개요

2017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333만5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다. 국내 관광시장의 큰손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방문의 급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한국관광공사는 분석했다.

2017년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416만9천353명으로 전년보다 48.3% 감소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방한 단체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3~12월을 보면 301만3천320명이 입국해 2016년 같은 기간의 699만9천333명에 비해 56.9%나 줄어 하락 폭은 더욱 커진다.

반대로 2017년에 출국한 국민은 전년보다 18.4% 증가한 2천649만6천44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출국 내국인이 입국 외국인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 ■ 사드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22.7%↓·해외여행객 2천650만명 사상 최대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2016년보다 22.7% 줄어든 1천334만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관광객이 금한령으로 48.3% 감소한 417만 명에 그쳤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중국 크루즈선 근무 승무원 비율이 높은 인도(-37.0%), 인도네시아(-21.9%), 필리핀(-19.4%) 입국객